



제12회 전국축산진흥대회

— 챔피언상 김강원씨가 차지—

축산발전을 위한 축산진흥대회가 축협중앙회(회장 명의식) 주관으로 지난 10월26일부터 3일간에 걸쳐 수원가축시장에서 열렸다.

가축품평회와 전시회로 나누어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도 단위대회에서 입선한 한우 56두, 젖소 24두 돼지 32두로 총 112두의 가축이 출품되었다. 한우부문의 챔피언상은 경북 김천군의 김강원씨의 소(815kg)가 차지했고, 돼지는 경기도 여주군의 왕기창씨의 듀록돼지가 챔피언상을 차지했다.

한국가축번식학회 정기총회

한국가축번식학회(회장 배대식)은 지난 10월29일(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강당에서 추계학술발표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특강으로 일본동경농업대학 종합연구소의 다소나까하라박사의 「일본 가축번식전망에 대한 조사 발표」와 경북대학교 변경대 박사의 「항체기능의 조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가축 방역조직 및 기능에 관한 연찬회

— 가축위생연구소에서 —

가축방역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난 10월27일(목) 오전 10시부터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가축전염병 방역조직 및 기능에 관한 연찬회가 개최되었다.

UNDP (국제연합개발계획)/FAO가 공동으로 수행 중인 가축위생 강화사업과 관련하여 해외 가축전염병의 역학기술발전, 방역요원 양성과 방역체계화 및 국내방역조직 역할 등 검역 및 방역대책 수립을 위하여 국내방역현황 분석,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주제발표 및 공개토론으로 진행하였다.

생물공학의 농업 및 축산업분야 응용에 관한 국제세미나

지난 10월 18,19일 양일간에 걸쳐 리베라호텔 백제홀에서 생물공학의 농업 및 축산업분야 응용에 관한 국제세미나가 건국대학교 주최로 개최되었다.

건국대학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대만 중흥대학교 등 3개국 25명의 연사가 나와 가진 이날 세미나에서 생물공학의 농업생산분야, 경종작물생산분야, 축산업생산분야에서 응용에 관해 열띤 토론을 가졌다.

전북양계협동조합 계란공판장 개설

전북양계협동조합(조합장 이기동)은 지난 10일 전주시 진북동에 계란공판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로부터 전북양계협동조합 승인에 앞서 이루어진 계란공판장은 총사업비 2천5백만원을 들여 35평규모로 개설되었다.

소값피동 조짐

최근들어 소값이 상승하면서 소사육마리수와 도축마리수가 줄어들고 농가의 소입식 과열현상이 빚어져 81~82년과 같은 소값파동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00kg짜리 숫소가 150만원, 숫송아지가 75만원을 상회하여 전년보다 50%이상 폭등하고 있어 82~83년 당시 비싼값에 송아지를 입식, 사육후 큰 손해를 보았던 전례와 유사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농민단체 협의회 결성

농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대한양돈협회, 낙농육우협회, 카톨릭농민회, 농업기술자협의회, 농어민후계자협의회 등 14개 농민단체가 모여 전국농민단체협의회(회장 유달영)를 결성하였다.

농림수산부 대기축과장에 김경남씨 발령

농림수산부는 지난 10월1일 대기축과장에 김경남 종축관리과장을 발령했다.

김과장은 건국대학교 축산공학과를 졸업한 기술고시 출신으로 국립농산물품질검사소, 농림수산부 축산과, 국립종축원 남원지원 등에서 근무했었다.

원유값 23%인상 건의

전국낙농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강성원)은 지난 5일 현재 kg당 322원인 유대를 396원으로 23%인상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낙농육우협회(회장 지재선)은 임원간담회에서 원유값을 24.5%인상을 건의하기로 하고 유대인상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는 실력행사를하기로 결정했다.

환율 6백원대로 진입

11월1일부터 한국은행이 고시한 원화환율은 7백원 원대를 무너뜨려 올들어 92원40전이나 떨어져 원화 가치 절상폭이 13.2%에 이르고 있다.

이에따라 올 연말환율이 6백70원까지 예상되어 수출의 40%정도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산업은 수출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경제전반에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

추곡수매가 정부·민정당(안) 14%, 야권3당 19.7%인상주장

정부는 올해 추곡수매가를 작년보다 14%인상하고 6백만섬 한도내에서 농가수매희망전망을 사들이기로 했다.

정부의 추곡수매가 결정 배경은 한계생산비개념을 도입하여 올 쌀생산비 인상요인 8.5%에 5.5%의 장려금을 추가한데 기인하고 있다.

한편 야권3당은 추곡수매가 인상폭을 19.7%로 합의했다.

전국계우회연합회 월례회

매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전국계우회연합회(회장 최준구) 월례회가 지난 10월15일(토) 오후2시에 을지로6가에 있는 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번 모임에서는 강희구 서울 경기양계협동조합장이 참석하여 난가전망에 대한 종합적인 강연이 있었는데 금년 말을 포함하여 89년 2월까지의 산란사료생산실적을 보아 계속 난가가 불투명하고 2월말부터 5월까지의 상승세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그간 말씀을 빚어오던 상인연합회와의 담합행위 제재조치 경과보고를 하였는데 보충자료 제출을 위해 상인연합회가 발행한 시세엽서 4장을 수거증거물로 제출한다고 발표하고 회원에게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